

장일범의 클래식 세상만사



우리에게도 사랑받는 신작 오페라가 필요하다

지난 2011년 12월 31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는 매우 독특한 오페라가 신년을 맞는 제야 공연으로 펼쳐졌다.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 작곡가로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 냈던 헨델, 비발디, 라모, 캄파라, 르클레어, 피셀, 레벨, 페란디니 등의 유명한 아리아들을 모아 바로크 파스티슈(혼성 모방)라는 이름으로 '마법의 섬'(The Enchanted Island)이라는 작품을 만든 것이었다. 내용 역시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와 '한 여름밤의 꿈'의 소재를 갖고 새롭게, 재창작한 작품이었다. 매우 흥미로운 작품으로 공연이 탄성하기 전에도 국제적으로 많은 호기심과 주목을 끌었다. 이런 다양한 작품 속의 아리아들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만든 오페라는, 즉 한 명의 작곡가가 통째로 작곡하지 않은 작품을 공연한 것은 오페라라는 장르가 생긴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내용도 무척 재미있었다. 우리로 따지면 용왕 역할인 바다의 신 넵튠역의 플라시도 도밍고가 등장해 요정에게 따끔한 질책을 받고는 "나는 늙고 이제 약해졌다"고 요정에게 엄살을 떠는 장면에서는 객석에 폭소가 터지

기도 할 정도로 유머러스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메트의 장점인 넓은 파급력의 상징인 Met HD시리즈를 통해 전세계의 극장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상연되었고, 청중들은 이제 이런 오페라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뉴욕 메트 오페라는 연출 같은 면에 있어 전체적인 기조는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극장 등의 혁신적인 연출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면모를 띠지만 레퍼터리 선택에 있어서는 과감함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중국 출신 작곡가로 우리에게서 주윤발과 장쯔이가 출연한 영화 '와오장풍'의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는 탄둔의 음악과 장미도 감독의 연출로 진시황이 황제로 등극한 이야기물 다룬 '첫 번째 황제'(The First Emperor)를 상연하면서 중국의 경극과 악기들을 메트 무대와 오케스트라에 올린 동서양 음악의 하이브리드 오페라를 만들어냈다. 또한 중국 성악가들을 다수 기용, 중국 색채의 무대와 함께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이후 최고의 중국풍의 작품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나비부인'에서는 초초상과 미해군 장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보듬은 어린 소년으로 출연시키기 마련이다. 그런데 메트의 신작 연출에서는 1막 처음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악간씩 섞인 듯한 '마담 버터플라이'의 의상과 무대를 선보였다. 연출가 안소니 밍겔라는 아이가 등장하는 2막에서는 과거적으로 일본의 인형극인 분라쿠 인형을 등장시켜 아이의 희로애락을 연기하게 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일본의 전통예술과 서양 오페라와의 만남은 이 작품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메트에서는 서방에 잘알려진 중국과 일본의 전통 연희를 오페라와 접목시키는 시도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아쉬운 것은 우리의 전통 연희가 이들의 오페라에 단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메트의 무대와 연출은 늘 열려있고, 이들은 세계의 융광로인 뉴욕의 특성답게 새로운 것 또는 다른 곳의 전통을 즐겁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나라 예술계에 더욱 분발을 요구하게 되는 시점이다.

얼마 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대구 오페라 축제에서 대구시립오페라단의 '청라 언덕'을 감상했다. 작곡가 박태준의 사람이 아기를 소재로 펼쳐지는 작품이었다. 귀에 익은 그의 가곡들을 오페라 내내 감상하는 것이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속으로 따라 부를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음악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았던 전반부에는 아쉬움도 남았는데 이럴 때 음악사의 예를 참고해보면 어떨까 싶다. 로시니, 베르디나 바그너, 푸치니도 완성한 후에 개작과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늘날 공연되고 있는 완성본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올려지는 신작 오페라들도 결작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리뷰를 받고 개작해야 한다. 작곡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작품을 개정해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한국 신작오페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음악평론가:KBS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MC>

종교칼럼



김재영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

오늘 지인으로부터 핸드폰을 통해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받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어린 소년이 약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붙잡혀 야단을 듣고 있었다. 열 개 주인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고 돈을 대신 지불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가게에서 음식까지 싸서 주게 된다. 그 착한 가게 주인은 돈 없이 배고파 하는 사람에게는 값도 받지 않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선량한 사람이었다. 세월이 지나 그 착했던 가게 주인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치료비 청구서를 본 그의 딸은 너무 많은 액수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며칠 뒤

최고의 소통은 나누는 것

받아 본 청구서에는 치료비 전액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30년 전에 이미 약과 음식으로 지불한 것이라는 글이 써져 있었다. 그 치료비를 대신 지불한 사람은 다른 아닌 어린 시절 약을 훔치다 들린 소년이었다. 출처를 찾아보니 이 이야기는 태국의 이동통신 회사인 'True Move H'의 3분짜리 광고 영상의 내용을 옮긴 것이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16일(현지시간) 이 광고 영상을 소개하며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와 약 350만 명 시청했으며 네티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행복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대 목표이면서도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고지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충분한 부를 가진 자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혹자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단순한 것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결국 행복의 문제는 사람마다 상대적인 것이고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이기도 하다는 것인가?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추구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공리주의가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처럼,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인가.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표방한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적인 기능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절대적 빈곤의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사회적 공동체인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자발적 행동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상대적인 빈곤 해소는 물질적인 측면만 고려할 문제는 아니다. 정서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많은 기업이 열과 성을 다해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은 보편적인 선(善) 의지로 여겨진다. 보편적 책임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

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나눔은 실천하려는 의지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가져다준다. 나눔은 본인에게도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 했다는 자존감을 주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공동체가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희망과 자활 의지를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이 경제활동에 편입되는 성과도 있다. 예를 들어 도움만 받던 중증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다면, 돌봐주던 가족도 직장을 갖고, 장애인 본인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두 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물론 나눔이 모든 사회 갈등과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눔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회는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기에 더욱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함께 나누는 정신을 잘 가꾸어 나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눔의 정신이 하나하나 엮어 다 보면 우리 사회는 오늘날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정승준
신안부군수

바다의 보양식 낙지, 무분별한 남획 막아야

해서 잡는데 통발 낙지는 수심이 깊은 곳에 철제 같은 미끼를 통발에 넣어 낙지를 유인해서 잡는 방법으로 여수, 고흥 같은 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이용한다. 낙시로 낙지를 잡는 방법을 낙지주낙이라고 하는데 주로 신안, 무안, 함평 같은 전남 서남해역의 갯벌이 발달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신안에서는 밤에 횃불을 들고 조간대를 다니면서 잡는 해낙지(서치라이트) 방법과 낙지를 잡는 방법 중 가장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삼(호미)을 이용해서 잡는 가래낙지잡이와 맨손낙지잡이 방법이 있다. 이중 맨손으로 잡는 낙지는 다른 낙지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안낙지를 최초로 치는데 그 이유는 청정해역의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갯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만의 차이가 크고 수심이 낮아서 갯벌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 많은 갯벌생물이 서식하여 낙지의 가장 좋은 먹이감이 되어 주고 있다. 신안 지역에서 주로 나온 빨낙지는 순수한 갯벌에서 나는 것으로 피부가 순진히 빨색깔이며 갯벌에서 기름진 플라크톤과 갯지렁이 등을 먹고 자라서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이 좋다. 낙지는 타우린 함량(854mg/100g)이 높

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단백질, 인, 철, 비타민 성분 등이 있어 콜레스테롤의 양을 억제하며 빈혈예방의 효과가 있다. 또한 타우린은 뇌의 교감신경에 대한 억제작용을 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고 뇌기능을 돕는 DHA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두뇌발달에도 좋다. 낙지는 바다 생물 가운데서 대표적인 스테미나 식품으로 꼽힌다.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지은 '자산어보'에 의하면 "지쳐 쓰러진 소에게 낙지 서너 마리만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는 글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낙지 생산량은 5799여 톤으로 연간 낙지 소비량 4만9198만 톤 대비 자급률이 11.8%에 불과해 나머지는 전량 중국, 베트남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 생산량은 4564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78.7%를 점유하고 있고 그중 신안지역 생산량은 600톤으로 전남 생산량의 13.1%를 차지할 정도로 신안지역의 주요 소득원이지만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산란기인 5~6월 고수온과 가뭄의 영향도 있었지만 주요한 원인은 목포와 무안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있는 통

발어선 때문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낙지철인데도 신안과 무안 등의 서남해 갯벌낙지 어획량이 예년보다 40% 가량 줄어 전 국민이 기다려온 신선 낙지축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맞볼 수 있고 국민의 음식으로 자리 잡은 낙지를 조만간 식탁에서 구경하기 어렵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하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다양한 동식물 자원이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한번 자원이 고갈되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희생이 따른다는 교훈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멸종위 낙지 자원 회복에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산란기만이라도 신안, 무안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금어기를 채취금지 크기와 구역을 정해 명제화하고,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겠다. 아울러 주요 낙지 산란해역을 중심으로 보호수역을 지정하고 통발 어선의 지속적인 감척 추진과 낙지 종묘 방류, 불법어업 단속, 다른 수산 어족자원 계획적인 생산을 위한 총어획허용량(TAC) 도입 등 다각적인 낙지 자원 보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농산물값 안정 위해 국가수매제 실시해야

올해도 추수가 끝나자마자 농민들이 벼 아적시위에 돌입했다. 벼 생산량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 하락과 판로난으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배추도 흉수 출하로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따라서 기초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년도내 벼 생산량은 지난해 70만405t보다 13만4200t이 증가한 83만4600t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비축매입량은 40kg들이 포대비 8만5382t, 산물비는 9614t이며 매입단가는 1등급 기준 5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농민들은 쌀(80kg) 목표가격이 23만 원선선인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17만 3083원을 제시해 크게 낙담하고 있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 저장시설에서 추진하는 자체 매입량(44만7000t)도 한정돼 있다. 결국, 나머지 물량은 민간업자 등에게 할당에 남

지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장철 배추의 경우 올 가을 생산량이 155만t으로 지난해보다 20%나 늘어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거래되는 배추 1통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3000원 선으로 채소농가의 피해도 볼 보듯하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까지 벼를 비싸게 매입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파는 이중국가제로 농민을 지원했지만,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폐지됐다. 농업관련 국제협약은 지켜야 하나 우리 농민 보호를 위해 쌀·보리·콩과 배추·대과·고추·마늘 같은 기초농산물은 국가가 수매해 농민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마침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기초농산물에 대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으로 국가가 수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농정당국은 국가수매제가 자리 잡아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전남 수돗물 요금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니

전남지역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상수도 보급률도 낮아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에 의존, 수질오염에 노출되는 등 '물 복지'에서 심각한 소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23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전남 22개 시·군의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1당 787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 단가 619원보다 무려 168원이나 비싼 것이다. 가장 물값이싼 대전시의 485원과는 무려 302원이나 차이가 나고, 광주시 단가 524원과도 비교가 된다. 요금도 꾸준히 상승해 2008년 752원에서 2009년 756원, 2010년 761원, 2011년에는 787원으로 올랐다. 상수도 보급률과 수질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서울 등 대도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9%인데 반해 먼 단위 농어촌은 58.5%에 불과하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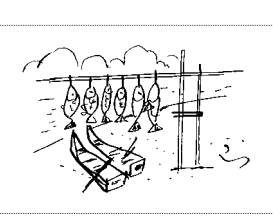
적으로 41.5%가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주민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물론 전남과 같이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많아 취수원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비싼 수도요금에 상수도 보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한다. 또한 노후 수도관 교체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수돗물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는 점에서 결코 좌시해선 안 되는 일이다. 정부는 상수도 업무가 전 대전시의 485원과는 무려 302원이나 차이가 나고, 광주시 단가 524원과도 비교가 된다. 요금도 꾸준히 상승해 2008년 752원에서 2009년 756원, 2010년 761원, 2011년에는 787원으로 올랐다. 상수도 보급률과 수질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서울 등 대도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9%인데 반해 먼 단위 농어촌은 58.5%에 불과하다. 결과

無 等 鼓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도감인 자산어보에는 '민어는 익혀 먹거나 날것으로 먹어도 좋으며, 말린 것은 더더욱 좋다'고 쓰여 있다. 민어 중에서도 마른 민어를 최고로 쳤는데, 이를 '건장' 민어라고 했다. 요즘에는 만드는 사람이 많지 않아 구하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민어포가 육포보다 맛이 좋아 인기를 끌었다.

지정될 만큼 청정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잡힌 민어와 참송어, 농어 등을 원료로 88가지의 미네랄이 함유된 천연염으로 짠 해풍에 말리면 명품 해풍건장이 된다. 시기적으로는 초겨울에서 이른 봄에 높은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풍부한 해풍에 40여일간 말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해풍건건으로 태어난 생선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선 고유의 맛이 더해져 상품가치가 배가 된다. 해풍건장이 안전행정부의 '우리마을 향토자원 베스트 30'에서 1등에 해당하는 대상에 선정됐다. 전국 각지에 숨어있는 특산품과 관광명소 등 145개의 향토자원 가운데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해풍건장



보양식으로 건장 민어탕을 끓일 때는 납내에 따라 끓이는 방법이 달랐다. 납자를 먹을 것은 쌀 뜬물에 더덕을 넣고 끓인 반면 여자를 것은 쌀 뜬물에 산도랏(산도라지)을 넣고 끓였다. 산모가 산도랏 건장 민어탕을 먹으면 젖이 속속 나온다고 했을 정도로 특효가 있었다. 신안 증도의 장고마을에 가면 특산품 장대에 빨래줄처럼 줄을 달아 생선을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냉동시설이 없던 시절 천연염과 해풍을 이용해 '자연 그대로' 생선을 말리던 방식으로 '해풍건장'이라고 한다. 슬로시티 증도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갯벌도립공원으로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선 고유의 맛이 더해져 상품가치가 배가 된다. 해풍건장이 안전행정부의 '우리마을 향토자원 베스트 30'에서 1등에 해당하는 대상에 선정됐다. 전국 각지에 숨어있는 특산품과 관광명소 등 145개의 향토자원 가운데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신안군은 차체에 가공공장을 설립해 해풍건장을 대한민국 최고의 향토음식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식품이 자신이 되는 시대다. 해풍건장이 슬로푸드'의 명품화 사례가 되는냐는 이제 신안군의 몫이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yo@kwangju.co.kr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건강식품 구입 주의 필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성폭행과 성추행이 많고, 심지어 정관계 유명인사들까지 심심찮게 성추문 사건이 드러날 정도로 성에 대해 유난히 집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이견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국민성 탓인지 TV는 TV대로 채널만 돌리면 S라인 V라인이라며 성적으로 어

필할만한 모든 연예인들 데려다가 선정적인 장면으로 도배질한다. 가정에서 TV보는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거기에 몰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자. "비아그라 싸게 사는 방법 없나요?" 혹은 "비아그라 최저가에 판매, 신착순" 등의 선전 문구들이 난무한다. 오죽하면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광

고 카피중에도 "남자한테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라는 말이 유행일까. 성기능 개선부터 근육강화, 다이어트, 원기회복까지 유명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 제제를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것을 노리는 불법 식품·의약품 판매가 항상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그것이 체질에 안 맞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면 영락없이 몸을 망가뜨리게 된다. 국내에서는 판매가 어렵고 당국에서 단속

을 해서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강하게 하다 보니 아예 해외로 나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수법도 비밀비재하다. 무슨 비아그라니, 무슨 강화제니, 남성을 원기회복을이니 하는 이런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판매 물건은 구매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어설피게 잘못 먹었다가는 건강을 완전히 망치고 큰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절 경시하자. ▲김성욱·목포시 대방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경주시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00-661 (F A X 227-9600)	(F A X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